



사랑의 인문학  
양은덕 지음

문학과 철학이 주고받는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광기의 발현인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가.

줄리엣의 시신을 발견한 로미오는 독약을 삼킨다. 로미오의 주검을 목도한 줄리엣은 자기 가슴에 로미오의 칼을 꽂는다. 두 연인은 헤어지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을 택한다. 이들에게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존재의 사소한 고통, 슬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학적 '하나'는 하나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반면 철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삶과 세계의 불확실성과 모순을 탐색한다.

문학과 철학의 대화에 관심을 두고 강의와 집필을 진행하는 양은덕 씨가 펴낸 '사랑의 인문학'은 삶과 세계를 비추는 두 거울에 초점을 둔다. 책은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오가며 사랑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풀어낸다. <삼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첫숨  
배명훈 지음

우주정착지서 찾은 인간 연대

그동안 발달한 상상력과 냉철한 분석을 통해 독특한 소설 세계를 구축했던 배명훈 작가가 열 번째 작품집 '첫숨'을 펴냈다. 이번 소설에서도 작가는 날카로운 주제 의식, 문장의 흡입력, 팽팽한 사건 전개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지난 6월부터 11월 초까지 문지블로그에 연재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첫숨'은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유티와 맞물려 읽는 재미를 준다. 달과 화성에서의 삶이 가능한 시기, 인구 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정착지 '첫숨'에서 비밀 무기 추격 사건이 벌어진다.

첫숨은 회전축과의 거리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는 공간이다. 고층 건물은 중수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며 이 원리에 따라 장소의 용도가 달라진다. 소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주 정착지에서 생긴 우주 시민들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휴머니즘적 연대를 그려낸다. <문학과지성사·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자리 차지하고 침묵을 지키는 관리들 임금에 순종만 하면 나라엔 이익이 없다”

## 상소와 비담

윤재환 지음



태조 4년(1395) 4월 25일 대사헌 박경이 올린 상소다.

“이달 22일 전하께서 궁으로 나가 노실 때, 연일 계속해서 하늘에서 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으니, 이것은 하늘이 전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전하께서 두려워하여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경은 태조에게 풍악과 여색을 멀리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내쳐라고 간한다. 대사헌은 임금의 행위에 간쟁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태조의 답이 눈길을 끈다.

그는 자신의 행실을 옹호하기보다 잘못을 고치겠다고 명확히 했다. “밤에 풍악을 울리고, 수레를 경솔히 내고, 수레 앞에 음악을 담당하는 여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내가 앞으로 고칠

것이다.”

상소(上疏)는 신하가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린 글을 일컫는다. 임금에게 간언이나 의견, 진정을 전달하는 글을 뜻하기도 한다.

왕조시대 상소는 언로(言路)의 중요한 매개였다. 평민에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물론 상소는 규칙과 절차가 정해져 있었다. 승정원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왕의 비담(批答·임금의 답)도 승정원을 통해 하달되었다.

상소에 격식과 규정을 엄격히 두는 것은 정치적 언술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공인된 행위일지언정 상소 행위자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용기가 필요했다. 특히 왕의 행위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간쟁소, 신하의 잘못을 탄핵하는 탄핵소, 정책과 사건을 비판하는 논사소는 적잖은 위험이 따랐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상소 중 되새겨 볼 만한 상소들을 뽑아 엮어낸 책이 출간됐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작금의 민주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상소’를 거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언론과 개방된 지금의 사회가 조선의 왕권 사회보다 자유로운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말의 자유로움이 과연 조선이라는 통제사회에 비해 자유롭고 과감하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단국대 윤재환 국문과 교수가 ‘상소와 비담’을 펴냈다. 책에는 원문 외에도 번역문, 간단한

평설까지 덧붙여져 있어 상소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상소 중에는 간언을 이유로 신하를 옥에 가두는 임금을 향한 내용도 있다.

연산군 때 판중추부사를 지낸 손순호가 주인공이다. 그는 연산이 등극한 뒤, 첫 정사에서 대간을 옥에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 상소를 올렸다.

그는 “과감하게 간하는 자는 추호라도 제 집, 제 목을 위하는 사심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침묵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비열한 자들이니 비록 한 때 임금의 분부를 순종한다고 해도 국가에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조선의 상소는 당대의 언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다. 간언을 올리는 자와 답을 내리는 자의 관계 등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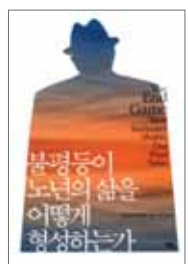
“내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로의 두 주체가 모두 언로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싫어할 것을 억히 알면서도 싫은 소리를 계속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싫어할 것을 알지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며, 들을 말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언로는 표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사·2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시대에는 상소제도가 있어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사 제공>

## 노년 이전의 불평등이 노후의 생활까지 결정



불평등이...  
에브러슨 지음

누구나 늙는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늙어가는 과정에는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유무형의 경험들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노년의 불평등은 인생의 다른 시기에 겪는 불평등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늙는 것도 계층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이가 있다.

에리조나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코리 M. 에브러슨은 ‘불평등이 노년

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주목한다.

그는 불평등이 단순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불평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저자의 관점은 누가 오래 살지, 누가 늙을 기회를 얻기도 전에 죽을지는 사회적 불평등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노년 이전에 이미 불평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적 위치가 주는 압박과 과제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

정부의 복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과 지역 수준의 물질적 자원과 부의 차이는 노년에도 계속해서 선택

권, 기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이 관계망으로 통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지만, 관계망이 제공하는 자원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을 계층화한다.

즉 불평등이 조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복잡성 때문에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문화인데, 문화는 불평등에 의해 만들어진 이전의 경험에 따라 구축된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비운의 독립운동가 일대기 만화로 만나다



만화 박헌영  
유병운·김용석 지음

꽃밭도 무덤도 없는 비운의 독립운동가 박헌영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박헌영’(구 경성아리랑)이 완간됐다. 전 6권으로 구성된 만화는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기록이 사라진 독립운동가들을 역사의 현장에서 재미있게 되살려내고 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역사학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정 박헌영의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그의 일대기와 항일운동가들의 활동상에 대해 9권의 전집으로 출판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20세기 우리나라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살아간 청년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 만화로 다시 펴냈다.

1권은 박헌영의 어린 시절과 경성고보 시절(1918년)까지, 2권 3·1만세운동에서 1922년 4월 박헌영 체포까지, 3권 두 번의 투옥과 옥중투쟁(1922년 4월~1927년), 4권 박헌영의 탈출에서 경성트로이카 결성까지, 5권 1932년 세 번째 투옥과 경성콤그룹 지하활동 시작, 6권 경성콤그룹 활동에서 해방까지(1939~1945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플러시엔·각 권 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 선착순 동, 호수지정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편리한 교통편

문의  
062 383-6400